

효자배수지에 시민주도 '햇빛발전소' 착공

전주시, 1억5460만원 모아 2월까지 발전용량 100KW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키로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는 시민햇빛발전소가 가동된다. 전주시는 오는 2월까지 효자동2가와 삼천동3가 일대의 효자배수지 약 2245㎡ 부지에 발전용량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인 제1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시가 에너지자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이자 에너지 자립운동인 '에너지디자인 3040'의 대표 사업으로,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동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 등 5대 전략과 30대 과제를 추진해온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발전소에서는 연간 12만4100K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가구가 한 달에 평균 300KW의 전력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34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발전소 건립을 통해 지난해 485그루를 심어야 처리할 수 있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 향후에도 시민이 친환경에너지의 생산자가 돼 에너지를 소비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시민햇빛발전소 추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시민들이 조

합원으로 참여하는 '전주시민에너지협동조합'을 창립했으며, 시와 조합 간 사유지 제공 및 홍보, 건립확대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전주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해 조합원 124명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출자해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1억5460만원을 모았으며 사유지 사용허가와 발전사업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및 공사계획신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7일 착공에 들어갔다. /송효철 기자

전주비빔밥·한정식 전문음식점 협의회 전체회의

전주시 비빔밥·한정식 전문음식점 협의회는 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전주음식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관을 마련하고, 협의회를 일반회원(30개업소)과 특별회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명수 전북대 명예총장과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초청해 전주음식 발전을 위한 특강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전주음식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 정명수 전 총장은 "전주는 오랜 역사가 누적되면서 맛과 멋의 고장으로 이어져 왔다"며, "그 명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향토음식 대표와 셰프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도 특강을 통해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로서 전주가 가진 브랜드와 전주음식이 가지는 국내외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 등을 소개했다.

김관수 협의회장은 "기존에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있었으나 잘 운영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이번엔 잘 될 것 같다"며, "전주시의 많은 관심이 감사하고 앞으로 이 협의회가 전주음식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이 되어 잘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시민 행복 지속 슬로시티 조성

전주시,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향후 방향 공유

전주시는 8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국제슬로시티연맹의 72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슬로시티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에서 추진해온 2018년도 슬로시티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먼저, 한국슬로시티본부 장희정 사무총장이 국제 도시심형 전주슬로시티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어, 오는 2021년 제3기 국제슬로시티 연맹의 재인증에 대비해 72개 세부평가항목 관련 30여명의 부서장들이 2018년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인증 세부평가 항목은 △에너지·환경 정책 △인프라정책 △도시 삶의 질 정책 △농업, 관광 및 전통예술 보호 정책 △방문객 환대, 지역주민 마인드와 교육 △사회적 연대 △파트너십 등 7개 영역의 72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김양원 전주 부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전 세계가 전주의 슬로 정책에 대해 도심형 슬로시티로서 주목하고 있다"며, "슬로시티적인 삶을 구현해 전주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심형 대표 슬로시티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2019년 전주시 시민 블로그 기자단'의 발대식이 8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참가한 명예기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주의 매력' 전파

전주시는 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책, 문화, 관광, 일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온라인 전주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2019년 전주시 시민 블로그 기자단의 발대식을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된 시민 블로그 기자는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명예기자 10명과 신규 선발자 32명 등 총 42명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시, 시민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안 시 공식 블로그 '한바탕 전주 즐기기' (blog.jonju.go.kr)를 통해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 블로그 기자단에는 대학생부터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선발돼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본 전주의 매력을 블로그 콘텐츠로 만들어 전달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단은 2월부터 전주시의 각종 정책과 생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주제로, 정보와 재미를 주는 블로그 콘텐츠를 매달 작성하게 되며, 이를 시 공식 블로그 뿐 아니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널리 알리게 된다.

기자단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 지원과 함께 전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송효철 기자

동료 아들 살해·유기 30대 무기징역 확정

보육료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데려가 폭행하고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모씨는 2016년 10월 직장 동료 박모씨(37)에게 "아들 A군(당시 4세)을 보육 시설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이

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모씨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총 143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모씨는 박모씨가 이혼 후 A군을 홀로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너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 박모씨를 아들 인신매매범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군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안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도 "박씨가 당시 아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고심하고 있던 점을 이용해 A군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점만 봐도 인간관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다"며 "안모씨의 이기적인 악행으로 A군은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공익형·노노케어 참여자 모집

내일부터 23일까지 4921명

전주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노인 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일자리 4,416명과 노노케어 일자리 505명 등 총 4,921명의 노인일자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720명(공익형 4,268명, 노노케어 452명)과 비교하면 201명 증가한 것이다.

참여자격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가능한 전주시민으로, 선발된 사람은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주 3회, 하루 3시간씩 근무하며 매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된다.

접수는, 신청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14개 민간 수행기관에서도 동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성에 맞는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전교육 및 활동교육을 통해 노인문제 예방기능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2077), 완산구청(063-220-5131), 덕진구청(063-270-6871), 각 동 주민센터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등 14개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병원서 난동부리던 피의자 체포

음급실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피의자 A모씨(36)가 지난 5일 오전 4시경 군산시 B동 한 병원에 주취로 후송 되었다가 치료를 불필요하다고 하자 음급실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의 혐의(업무방해)로 체포됐다고 8일 밝혔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석훈 기자

교회서 화재 1시간 반만에 진화

8일 오전 0시 9분경 완주군 봉동읍 한 교회 교육관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은 교육관 내부를 태워 180㎡ 중 80㎡가 타 소방서 추산 2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교회 건물 옆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발견돼 남은 불씨가 교회건물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